

벨기에 플란더스지방의 자치운동 연구

오 정 은 (한성대학교)
(mouton3@naver.com)



국문요약

벨기에가 1830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 북쪽에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플란더스지방과 남쪽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왈롱지방이 영토에 포함되었다. 독립 초기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남쪽의 엘리트가 중심이 되어 국가법제를 완성하고, 프랑스어만을 유일한 국어로 지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플란더스 주민들이 네덜란드어 공인을 비롯하여 플란더스지방에 대한 차별 해소와 자치권 강화를 요구하는 ‘플란더스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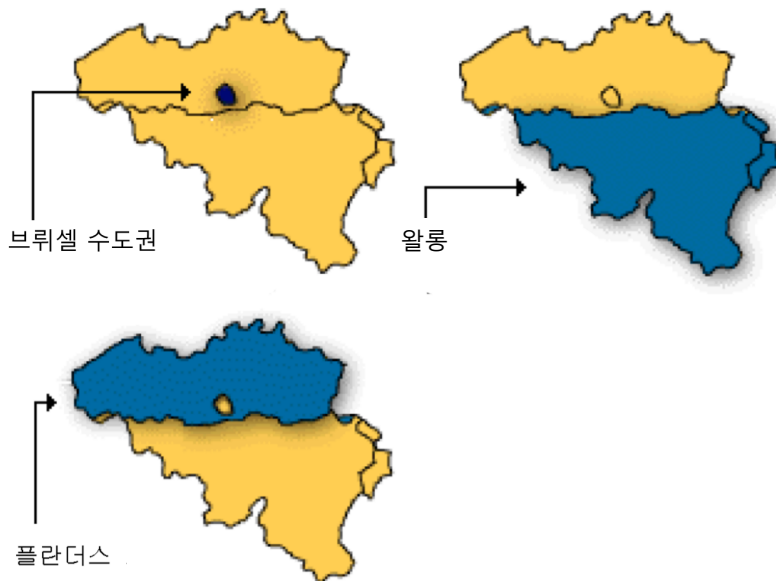
1898년 평등법 제정으로 네덜란드어가 벨기에의 공식언어로 승인되고,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오늘날 플란더스는 왈롱과 대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르게 경제가 발전한 플란더스에 비해 왈롱지방 경제가 침체되고, 연방정부가 실업자 지원 등 복지예산을 왈롱지방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면서, 플란더스지방에서 자신들이 세금이 왈롱으로 간다는 불평이 일었고, 플란더스 자치 확대 운동이 다시 부상하게 되었다. 플란더스 자치운동은 최근 선거에서 플란더스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플란더스 정치권의 조직적인 여론화 작업으로 플란더스 자치 확대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플란더스지방이 벨기에 연방에서 탈퇴하고 분리독립하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

주제어 : 플란더스, 왈롱, 자치운동, 분리주의, 분리독립

I. 서론: 벨기에에서 플란더스지방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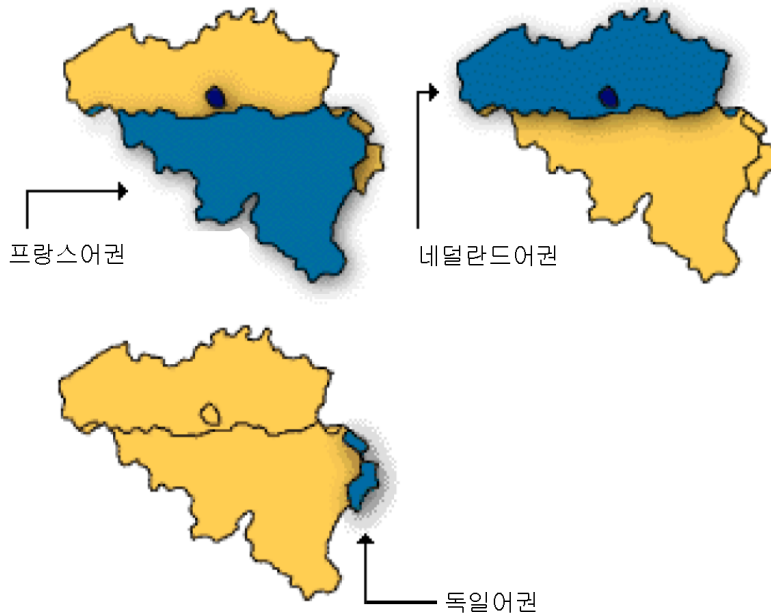
벨기에는 면적이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에 불과한 작은 나라이지만, 서로 다른 특색을 갖춘 지방(region)들이 자치정부를 운영하는 연방제 국가이다. 벨기에의 지방은 자치정부에 따라 플란더스, 왈롱, 브뤼셀 수도권 등 3개 지방으로 구분되며, 지방에 따라 사용 언어가 다르다. 벨기에 전역을 언어 사용자에 따라 공동체(communité)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에 따르면 벨기에는 크게 네덜란드어권, 프랑스어권, 독일어권 등 3개 공동체로 구성된다. 플란더스지방은 네덜란드어권과 일치하고, 왈롱지방은 프랑스어권 공동체와 독일어권 공동체를 포함한다. 브뤼셀 수도권은 네덜란드어권 구역과 프랑스어권 구역이 공존하는 이중언어 지방이다.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벨기에의 자치정부에 따라 구분되는 3개 지방과 언어권에 따라 구분되는 3개 공동체를 보여준다.

<그림 1> 벨기에의 3개 지방



출처: 오정은, 2009, 벨기에의 외국인 참정권에 관한 연구, 유럽연구 27(3), 133.

〈그림 2〉 벨기에의 3개 언어공동체



출처: 오정은, 2009. 벨기에의 외국인 참정권에 관한 연구. 유럽연구 27(3), 134.

1830년 독립 당시의 벨기에는 프랑스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중앙집권 국가로 출발하였다. 하지만 벨기에 영토의 북쪽에 위치한 플란더스지방은 원래 네덜란드어가 사용되는 곳이었고, 이곳의 주민들은 벨기에 독립 후에도 계속해서 일상어로 네덜란드어를 사용하였다. 특히 교육받지 못한 플란더스 농민들은 관공서에서 사용되는 프랑스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프랑스어 화자 사이에는 네덜란드어만 사용하는 플란더스인들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Leclerc 2008).¹⁾

건국 후 100여년의 시간동안 벨기에의 정치·경제적 중심지는 프랑스어가 사용되는 남쪽의 왈롱지방이었다. 왈롱지방에는 공업과 상업이 발전하였고, 부유한 상공업자를 비롯하여 정재계에 영향력이 큰 엘리트층이 많이 거주하였다. 이에 반해 북쪽의 플란더스지방은 농민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어는 상류층 언어, 네덜란드어는 하류층 언어처럼 취급되었다. 벨기에 정부는 1898년까지 프랑스어만을 벨기에의 유일한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학교에서도 프랑스어로 교육하였다.

1898년 평등법(Equality Law)이 제정되면서 네덜란드어도 벨기에의 공식 언어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벨기에에서 네덜란드어의 위상이 프랑스어보다 낮았다

1) 출처: http://www.axl.cefai.ulaval.ca/europe/belgiqueetat_histoire.htm (검색일: 2018.01.05.).

(De Visscher 2014, 24). 플란더스지방에 네덜란드어로 교육하는 대학이 처음 개교한 것은 1930년이었고, 프랑스어로 제정된 벨기에의 헌법이 처음으로 네덜란드어로 번역되어 출판된 것은 1967년이 되어서였다(De Visscher 2014, 24).

네덜란드어 사용자에 대한 차별적 사회구조에 대해 플란더스지방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었고, 언어문제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갈등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플란더스지방의 네덜란드 화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개선되어 갔다. 그리고 1993년 벨기에의 연방제 도입을 계기로 플란더스지방은 자치정부를 구성하게 되었고, 왈롱지방과 동등한 수준으로 자치권을 획득하였다.

오늘날 플란더스지방의 네덜란드 사용자는 더 이상 왈롱지방의 프랑스어 사용자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차별받는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플란더스 주민이 왈롱 주민에 대해 우월감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플란더스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여 플란더스의 소득수준이 왈롱지방을 능가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플란더스지방의 1인당 GDP는 33,513€인데 반해, 왈롱지방의 1인당 GDP는 25,133€로 플란더스지방의 75.0% 수준이다.²⁾

플란더스지방의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다. 벨기에의 주요 수출품인 식품 산업을 비롯하여 고부가가치의 첨단 산업이 크게 발전한 덕분이다. 이에 반해, 석탄산지 주변 공장지대의 제조업에 의존하던 왈롱지방은 석탄을 이용한 굴뚝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높아졌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7년 3분기 기준으로 플란더스지방의 실업률은 4.4%인데 반해 왈롱지방은 9.9%로, 왈롱지방 실업률이 플란더스지방 실업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³⁾

이처럼 왈롱지방 경제가 침체되고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벨기에 연방정부는 실업자 지원 등 복지관련 비용을 왈롱지방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 플란더스 정치권에서는 플란더스지방의 세금이 왈롱지방으로 흘러들어가는 바람에 플란더스 주민의 누려야 할 복지혜택이 줄어들었으며, 플란더스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플란더스지방을 벨기에 연방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Leclerc 2008).⁴⁾

플란더스의 분리독립 요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벨기에 독립 초기부터 시작된 플란더스 자치 확대 운동인 이른바 ‘플란더스 운동’ 속에는 분리독립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의 분리독립 요구는 분리주의 정당의 체계적인 계획 하에 전개 되고, 해당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2) 출처: <https://goo.gl/NMnmv4> (검색일: 2018.01.12.).

3) 출처: <https://goo.gl/eEJNtg> (검색일: 2018.01.10.).

4) 출처: http://www.axl.cefanelaval.ca/europe/belgiqueetat_histoire.htm (검색일: 2018.01.05).

있다.

분리주의 정당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고 해서 플란더스가 곧 벨기에 연방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과거에도 플란더스 분리독립 운동이 고조된 적이 있었지만, 벨기에의 단일국가 체제를 와해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분리주의 정당이 제1정당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주변국인 스페인에서 2017년 10월 카탈루니아 지방 분리독립 투표를 강행하고 적극적으로 지역분리를 시도하였던 사건을 계기로, 플란더스지방의 분리독립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⁵⁾ 현재 플란더스 분리독립 운동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플란더스지방의 분리독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을 맞이하여, 플란더스지방의 자치운동 발전 과정과 분리독립 운동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플란더스 자치운동 발전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우선 플란더스 자치운동 운동의 발전 과정과 벨기에 중앙정부의 대플란더스 정책을 살펴보면서 플란더스 운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어서, 플란더스 분리주의 정당의 부상이 플란더스지방의 자치운동에 주는 의미를 분석한다. 특히 현재 플란더스에서 전개되는 플란더스 자치운동의 두 가지 노선을 살펴보면서, 향후 플란더스지방의 분리독립 가능성을 포함하여 플란더스 자치 운동의 발전 방향을 전망하겠다.

II. 플란더스 자치운동 발전 과정

벨기에는 유럽 열강의 이해관계 속에 인위적으로 형성된 국가였다. 건국 과정에 주민 성향이 상이한 플란더스지방과 왈롱지방이 벨기에 영토에 포함되었고, 결과적으로 지역갈등의 가능성을 내포한 채 국가가 탄생되었다.

오늘날의 벨기에 건국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빈체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빈체제에서 승전국들이 프랑스 영토의 일부를 떼어 네덜란드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과거 프랑스에 속했던 남부 지역이 네덜란드 왕정의 통치방식에 반발하여 봉기하면서 1830년 독립국가 벨기에가 되었다. 1830년의 독립 벨기에 영토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1815년 통합 네덜란드 시절에는 남쪽과 북쪽 사이에 크게 두 가지 지역갈등이 있었다. 그 하나는 종교 문제로, 북쪽 지역에서는 개신교를 신봉하였던 데 반해 남쪽 지역에서는 가톨릭을 믿었다. 다른 하나는 지배언어의 문제로, 왕가를 중심으로 네덜란드 지배층은 네덜란드어를 통치언어로 사용하였는데, 남쪽의 프랑스어권 상류층 사람들이 네덜란드어

5) 출처: <https://goo.gl/fG5BxE> (검색일: 2017.12.20.).

통치에 반발하였다. 두 가지 갈등구조에서 종교적 갈등이 벨기에 독립의 핵심 추동력으로 작용하였고, 남쪽의 가톨릭교도 가운데 프랑스어 사용자가 중심이 되어 벨기에 영토를 네덜란드로부터 분리독립시켰다. 이 과정에서 가톨릭을 믿으면서도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오늘날의 벨기에 북부지역, 즉, 플란더스지방이 벨기에 영토에 편입되었다. 벨기에 독립운동에 대해 프랑스어권 상류층은 적극적이었던 데 반해, 플란더스 주민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플란더스는 벨기에라는 통일국가의 한 부분이 되었다 (Leclerc 2008).⁶⁾

벨기에 건국 이후 언어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1846년부터였다(De Visscher 외 2014). 벨기에 성립 이전부터 플란더스와 왈롱 사이에 언어차이가 있었는데, 신생국가인 벨기에의 권력층이 프랑스어만을 벨기에의 유일한 국어로 선포하자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중산층 지식인들이 반발하였다. 이들은 이른바 ‘플란더스 운동’을 전개하면서 벨기에 정부에 네덜란드어 공인을 요구하였다.

플란더스는 왈롱보다 인구 수가 많았기 때문에 네덜란드어 인정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플란더스 인구는 지속적으로 벨기에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해 왔다.⁷⁾ 하지만 초기의 프랑스어권 엘리트들은 네덜란드어 인정 요구를 묵살하였다 (홍기준 2006, 123).

〈표 1〉 벨기에 지방별 인구구성비 변화

(단위: %)

연도 지방	1890	1920	1947	1961	1970	1983	2001	2017
플란더스	50.3	51.5	54.2	55.7	65.1	57.7	57.9	57.6
왈롱	41.5	38.2	34.6	33.1	32.7	32.5	32.1	31.9
브뤼셀	8.2	10.2	11.2	11.1	11.1	10.0	10.0	10.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안영진 · 조영국(2008, 295); 벨기에 통계청(<http://statbel.fgov.be>).

플란더스 운동은 브뤼셀의 프랑스어 확대와 맞물려 고조되었다. 브뤼셀이 벨기에의 수도로 지정되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상류층 엘리트들이 브뤼셀로 모여들고, 네덜란드

6) 출처: http://www.axl.cefanelaval.ca/europe/belgiqueetat_histoire.htm (검색일: 2018.01.05.).

7)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1월 1일 기준 통계에서도 벨기에 총 인구 11,322,088명 가운데 플란더스 인구 6,515,011명(57.6%), 왈롱 인구 3,614,473명(31.9%)으로 플란더스 인구가 과반수를 차지한다. 출처: <https://goo.gl/X3CFGp> (검색일: 2018.01.15)

화자도 신분상승을 희망하면서 브뤼셀로 이주하여 프랑스어로 교육받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면서 브뤼셀이 프랑스어권 지역으로 변한 것이다. 브뤼셀은 원래 지리적으로 플란더스지방에 위치한 네덜란드어 사용 지역이었는데, 프랑스어 사용자 증가로, 점차 플란더스지방으로 둘러싸인 언어의 섬이 되어 갔다. 이것은 네덜란드 사용자들에게 위기의식을 더했다.

언어갈등은 언어를 넘어 사회·경제적 균열과 연계되어 있었다. 벨기에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가 진행된 국가 중 하나로, 석탄과 철강 생산량이 많은 왈롱지방은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미 19세기에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플란더스지방은 오랫동안 미개발된 농촌지역으로 남아있었다. 네덜란드어 인정은 사회·경제적으로 경시되던 플란더스 주민의 위상 확보 문제로 인식되었다(Leclerc 2008).⁸⁾

20세기에 들어와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플란더스 자치운동은 더욱 고조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플란더스 지역은 독일군에 대항하며 전투를 벌였는데, 수많은 플란더스 출신 병사들이 전투에 참여하면서, 프랑스어로 지시하는 장교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 그런데, 다수의 플란더스 출신 병사들이 프랑스어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명령을 이해하지 못해 플란더스 장병들이 장교들로부터 멸시를 당했고, 명령을 이해하지 못해 플란더스 젊은이들이 죽어간다는 이야기가 생산되었다(안영진·조영국 2008, 395). 언어로 인한 차별과 반감 속에 플란더스인들은 네덜란드어와 유사한 게르만언어 계통의 독일어 사용자들과 친밀감을 느끼며 독일에 협력하기도 했다(안영진·조영국 2008, 395). 하지만 전후 독일협력자들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벨기에 당국자들에게 처벌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플란더스의 독일 협력이 이어졌다(오정은 2009, 134). 플란더스 정당들이 게르만문화권인 나치 독일에 경도되고 협력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일에 협력한 플란더스 주민들은 다시금 강력하게 처벌받았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어권과 네덜란드어권 주민사이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양차대전 동안 형성된 네덜란드어권과 프랑스어권의 강한 적대감은 전후 국왕 귀국에 대한 입장차에서도 뚜렷이 확인된다.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3세(Leopold III)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 항복하고 영국에 망명정부를 수립했다가 전후 귀국을 희망하였다. 이때 벨기에 국민을 대상으로 신임투표가 진행되었는데, 플란더스에서는 72%가 신임에 찬성하였던 반면, 프랑스어권은 58%가 독일에 항복한 왕의 귀국에 반대한 바 있다(안영진·조영국 2008, 395).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언어갈등에 기반을 둔 지방 사이의 대립이 계속되었다.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건 중 하나가 루뱅대학의 분열이었다. 1425년에 설립되어 오랜 전통을

8) 출처: http://www.axl.cefanelaval.ca/europe/belgiqueetat_histoire.htm (검색일: 2018.01.05).

가진 벨기에 루뱅대학은 원래 플란더스지방에 위치해 있었고, 학교 내에서 프랑스어 수업과 네덜란드어 수업이 동시에 제공되었다. 그러나 플란더스 주민들이 플란더스지방에서 네덜란드어로 가르치는 단일언어 사용 대학을 요구하면서, 대학을 둘러싼 지역갈등이 불거졌다. 결과적으로 1971년에 루뱅대학교는 왈롱지역에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하고 프랑스어로 수업하는 새로운 대학인 가톨릭루뱅대학(Université Cathlique de Louvain)을 설립하는 것으로 대학을 분할하였다(오정은 2015, 363-364).

1960년대의 극심한 지역갈등 이후, 벨기에 정부는 수차례 헌법을 개정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였고, 결과적으로 플란더스의 자치운동은 잠잠해져 갔다. 특히 1993년 벨기에정부가 공식적으로 연방국가임을 선언하고, 플란더스에 왈롱이나 브뤼셀 수도권과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플란더스와 왈롱 사이의 지역갈등은 해소되는 듯 보였다. 벨기에의 연방제 운영이 협의에 기초한 모범적인 민주주의 운영방식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홍기준 2006, 131-134).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시금 플란더스와 왈롱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2000년대의 지역갈등 부상의 근본 원인은 두 지역간 경제적 격차였다. 앞서 언급하였듯, 2차 세계대전 이후 2000년대에 들어올 때까지 플란더스지방 경제는 큰 폭의 성장이 이어졌지만, 왈롱지방은 경제성장률은 낮은 수준을 이어갔다. <표 2>는 1955년부터 2003년까지 벨기에의 지방별 GDP 상승률을 보여주는 것으로, 플란더스와 왈롱 사이의 경제성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 벨기에 지방별 GDP 평균상승률

(단위: %)

기간 \ 지방	브뤼셀 수도권	플란더스	왈롱	벨기에
1955-1975	3.56	4.72	3.02	3.95
1975-1995	1.24	2.53	1.73	2.06
1995-2003	2.00	2.18	1.64	2.01

출처: Michel Mignolet & Marie-Eve Mulquin(2005, 11)

플란더스의 분리주의자들은 현 상황에서 플란더스 주민은 왈롱의 가난한 주민을 위해 일방적으로 세금을 빼앗기고 있다는 희생량 담론을 펼치며 플란더스 독립의 타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플란더스지방에서 얼마나 많은 규모의 세금이 왈롱지방으로 흘러들어 가는지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이 대략의 규모를 추산한 결과가 발표되고 있을 뿐이다.⁹⁾ 하지만 정확한 통계가 없는 가운데 추정치가

발표되면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플란더스 주민들은 자신의 세금이 왈롱지역으로 흘러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불평을 제기하고 있다.

Ⅲ. 벨기에 중앙정부의 대플란더스 정책 변화

앞서 언급하였듯, 독립초기 벨기에 정부는 플란더스의 지방 특성을 무시하고, 프랑스어권 문화를 중심으로 통일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플란더스 주민이 벨기에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였지만, 1830년 11월 16일의 임시정부 법령(L'Arrêté du gouvernement provisoire du 16 novembre 1830) 제1조에 벨기에 정부의 법과 행정행위에 관한 모든 공식 문서를 프랑스어로 출간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학교와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모든 공공서에서 오직 프랑스어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비록 동법 제2조에 지방에서 정부의 프랑스어 문서를 네덜란드어로 번역할 수 있다는 구분을 넣었지만, 사실상 상류층이 사용하는 프랑스어를 벨기에의 유일한 공식어로 설정한 것이다.

1830년 제정된 벨기에 최초의 헌법을 통해 벨기에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지향함을 분명히 하였고, 이를 위해 당시의 벨기에 정치가들은 교육을 통해 하루빨리 벨기에 국민들을 모두를 프랑스어 구사자로 만들고자 하였다(Leclerc 2008).¹⁰⁾ 초대 수상이었던 로지에(Charles Rogier)가 1832년 당시 법무부장관 레캉(Jean-Joseph Raikem)에게 보낸 편지의 다음의 문구는 벨기에 건국 초기 프랑스어를 통해 중앙집권체제를 정착시키려는 정치가들의 입장을 잘 드러낸다.¹¹⁾

훌륭한 행정을 위한 제1원칙은 하나의 언어 사용에 기초합니다. 벨기에의 하나의 언어는 프랑스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목표에 도달하려면, 모든 공무원과 군대업무는 왈롱과 룩셈부르크지방 사람들에게 위임해야 합니다(Leclerc 2008).¹²⁾

9) 일례로, 플란더스지방 소재 가톨릭루뱅대학교 연구팀의 201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약 50~60억 유로가 플란더스지방에서 왈롱지방으로 흘러들어간다고 추산한 바 있다(Buyse et al, 2010).

10) 출처: http://www.axl.cefanelaval.ca/europe/belgiqueetat_histoire.htm (검색일: 2018.01.05.).

11) 해당 편지 문구의 프랑스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Les premiers principes d’une bonne administration sont basés sur l’emploi exclusif d’une langue, et il est évident que la seule langue des Belges doit être le français. Pour arriver à ce résultat, il est nécessaire que toutes les fonctions civiles et militaires soient confiées à des Wallons et à des Luxembourgeois.”

프랑스어 강요는 게르만 계통의 네덜란드어가 점진적으로 벨기에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벨기에에서 게르만 요소를 없애려는 의도도 있었다(Leclerc 2008). 하지만 플란더스 운동이 전개되면서 벨기에 정부는 점진적으로 플란더스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벨기에 정부의 대플란더스 정책에서 첫 번째 큰 변화는 1898년의 네덜란드어 승인이었다. 평등법(Equality Law) 제정을 통해 벨기에 정부가 건국 이래 유지해 온 프랑스어 단일 국어정책을 폐지하고, 플란더스에서 사용되는 네덜란드어를 프랑스어와 동등한 벨기에 공용어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1921년에는 플란더스와 왈롱을 구분하는 행정구역을 마련하였다. 남쪽의 왈롱지방과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구분되는 플란더스지방의 경계선을 명확히 함으로써 플란더스의 영역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벨기에 행정구역이 조금씩 조정되면서 1962년에 오늘날과 같은 플란더스지방 행정구역이 완성되었다. 1963년에는 언어권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지위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1970~1971년의 헌법개정을 통해 벨기에 전역이 크게 4개 언어권으로 구분됨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즉, 북쪽 플란더스지방에 해당하는 네덜란드어권, 남쪽 왈롱지방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프랑스어권, 왈롱지방의 동쪽 일부에 해당하는 독일어권, 그리고 벨기에 수도권지방에 해당하는 네덜란드어-프랑스어 이중언어권으로 벨기에의 언어권을 명시하였다(Deschouwer 2012).

1980년대에도 벨기에 정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플란더스지방의 자치권 인정을 확대하였다. 우선 1980년에 다시 헌법을 개정하여 플란더스지방에 자체적으로 교육, 문화, 고용, 지역인프라 등의 지역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어서 1988년에 또다시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예산의 약 30%를 공동체와 자치지역에 배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플란더스지방의 재정을 확대시켰다.

일련의 헌법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는 과정에서, 플란더스지방의 자치권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93년에 또 다시 헌법이 개정되어 벨기에가 공식적으로 연방제를 국가가 되면서, 플란더스의 자치권은 확고해졌다. 1993년 헌법에 따르면, 벨기에에는 언어공동체와 행정자치 지방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고, 자치지역은 지역개발, 교통, 공공사업, 주택, 경제 및 고용정책, 환경문제, 자치행정구역 등 공공정책을 관할할 수 있다. 그리고 언어공동체는 문화유산 관리,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 관리, 청소년정책, 교육, 가족정책 등에서 언어사용을 관할한다(홍기준 2006, 130-131).

플란더스지방은 네덜란드어 공동체와 일치하였기 때문에, 연방제 도입으로 자치권 행사의 범위가 명확했다. 즉, 플란더스지방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지역경제발전, 산업구조조정, 환경, 자연보호와 농촌 개발, 건축, 토지사용계획과 도시계획, 상하수도, 에너지정책, 도로건설, 수로, 지역공항과 대중교통, 지방정부, 농업, 통상 등의 관할권과 언어공동체에

12) 출처: http://www.axl.cefanelaval.ca/europe/belgiqueetat_histoire.htm (검색일: 2018.01.05.).

부여된 문화, 언어정책, 교육, 보건정책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홍기준 2006, 130-131). 이에 반해 중앙정부의 권한은 국방, 사법, 안보, 사회보장, 재정금융정책으로 한정되었다.

IV. 플란더스 분리주의 정당들의 부상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이루어진 네덜란드어 공인,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수혜를 받으며, 오늘날 플란더스지방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영역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플란더스의 자치권은 왈롱지방과 동등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플란더스에서는 자치권 확대 주장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플란더스의 자치운동 부상에는 플란더스 분리주의를 주장하는 정당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벨기에 정당들의 정체성은 사회·경제적 관점에 따른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종교적 관점에 따른 세속주의와 가톨릭, 언어사용자 관점에 따른 프랑스어권과 네덜란드어권 등의 대립 속에서 나타난다(오창룡 2017). 19세기에는 정당 간 대립의 주요 원인이 종교적 입장에 있었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사회·경제적 입장이 보다 중요한 정치권 갈등요인으로 부상했다. 이후 1960년대 후반부터 언어권 입장에 근거한 지역갈등이 벨기에 정당구조의 중요한 갈등요인이 되었다. 현재에도 지역갈등은 벨기에 정당 간에 가장 중요한 대립 원인이 되고 있다.

오늘날 벨기에의 정당들은 대부분 언어권으로 구분되는 지역단위의 정당이다. 주요 정당들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들은 연방정부의 정책을 위해 연정과 대립을 반복하면서 정부를 구성한다. 이와 같은 지역정당 체계는 1970년대 말에 확립되었다. 그 이전에는 전국단위 정당이 다수 존재했지만, 언어권 갈등이 심화되면서 1960년대 말부터 기존의 전국단위 정당들이 지역정당으로 분열되었다. 전국단위 정당이었던 기독교민주당(Parti Social Chrétien-Christelijke Volkspartij: CVP-PSC)이 1968년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왈롱지방에서 기독교사회당(Parti Social Chrétien: PSC)¹³⁾으로,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플란더스지방에서 기독교인민당(Christelijke Volkspartij: CVP)¹⁴⁾으로 분열된 것을 시작으로, 1971년에는 자유주의 계열 정당이었던 자유진보당(Partij voor Vrijheid en Vooruitgang-Parti de la Liberté et du Progrès: PVV-PLP)이 플란더스지방의 자유민주당(Partij voor Vrijheid en Vooruitgang: PVV)¹⁵⁾과 왈롱지방의 자유혁신당(Parti

13) 오늘날 인본주의민주당(Centre démocrate humaniste: CDH)의 전신.

14) 오늘날 기독교민주플란더스당(Christen-Democratisch en Vlaams: CD&V)의 전신.

Réformateur Libéral: PRL)으로 분열되었고, 1978년에는 벨기에사회당(Parti Socialiste belge-Belgische Socialistische Partij: PSB-BSP)이 플란더스지방의 사회당(Socialistische Partij: SP)¹⁵과 왈롱지방의 사회당(Parti Socialiste: PS)으로 나누어졌다. 이후 새로 창립된 신생정당들은 지역단위로 설립되었다.

지역단위 정당체계가 형성되면서 벨기에에서 지역 분리주의 주장이 확산되었다. 일부 정당들은 분리주의 정당을 표명하면서 분리주의 세력 결집을 위해 노력했다. 분리주의 정당은 프랑스어권인 왈롱지방과 네덜란드어권인 플란더스지방에 모두 존재했는데, 플란더스지방에서 영향력이 더 컸다. 사실 왈롱지역의 분리주의 정당들은 1980~1990년대에 대부분 타 정당에 흡수되어 오늘날에는 왈롱지방에 분리주의 주장이 거의 사라진 상태다. 하지만 플란더스지방에서는 분리주의를 주장하는 정당들이 꾸준히 지지층을 확보했고, 2000년대에 들어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플란더스지방에서 분리주의를 정당의 시초는 1954년 창당한 가톨릭계의 민중연맹당(Volksunie: VU)이다. VU의 활동은 미미했는데, 1978년에 VU의 한 분파가 플란더스블록당(Vlaams Blok: VB)을 창당하고 급진적인 분리주의 노선을 명확히 하면서 분리주의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극우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플란더스 분리독립을 주장한 VB은 창당 직후인 1978년 치러진 벨기에 총선에서는 1.4%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지지율이 상승하였고, 1991년대에는 연방의회에서 득표율 6.6%로 하원의석 12석을 차지하면서 주요 정당으로 부상하였고, 이후에도 1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요 정당의 입지를 구축하였다.

지방선거에서 VB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도는 더욱 높다. 1995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VB은 득표율 12.3%로 플란더스 의회 전체의석 124석 가운데 15석을 차지하였고, 1999년 선거에서는 득표율 15.5%로 플란더스 의회의 20석을 차지하면 지역의 주요 6개 정당 가운데 지지율 3위의 정당이 되었다.

VB의 지지율 상승 배경에는 실업률 증가, 범죄율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의 원인을 이민자 증가와 연결시키면서 반이민 정서를 자극한 극우정당의 논리가 주효했다(오창룡 2017). 여기서 VB의 극우 논리는 벨기에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플란더스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플란더스지방의 부가 더 이상 왈롱지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플란더스지방을 벨기에라는 연방국가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15) 오늘날 열린자유민주당(Open Vlaamse Liberalen en Democraten: Open VLD)의 전신.

16) 오늘날 색다른사회당(Socialistische Partij Anders: SP.A)의 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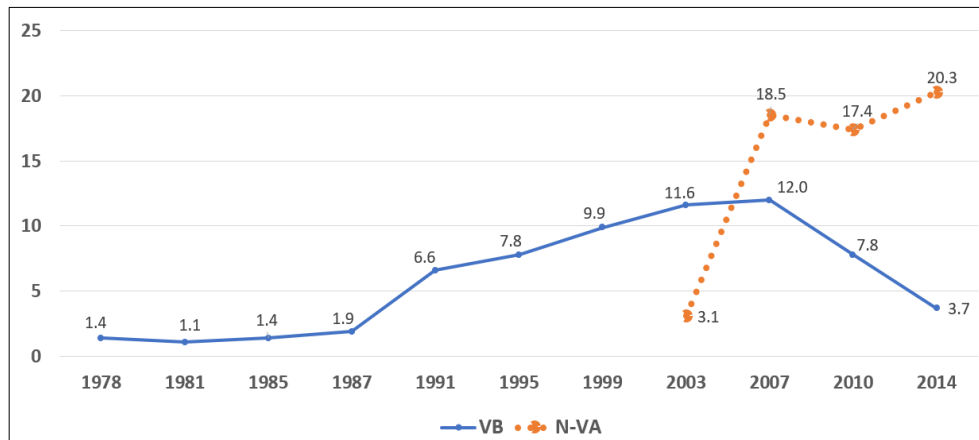
VB은 2004년 반인종주의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게 되자 당명을 플란더스이익당(Vlaams Belang: VB)¹⁷⁾으로 바꿨다(오창룡 2017). 이후 치러진 2004년 지방선거에서 VB은 득표율 24.2%로 플란더스 의회의 32개 의석을 차지하면서 플란더스지방 제1정당에 올랐다. 2009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득표율 15.3%, 6.0%로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VB의 분리주의를 지지하는 유권자층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2001년 창립된 신폴란더스연맹(Nieuw-Vlaamse Alliantie: N-VA)은 플란더스지방 분리주의의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N-VA의 기본 입장은 자유주의, 친유럽 성향을 유지하면서 플란더스지방의 자치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분리독립을 추구한다.

창립 후 처음 치른 2003년 총선에서 N-VA는 3.1% 지지율로 150개 연방하원의원석 가운데 1개 의석을 차지하는데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7년 총선에서는 18.5%의 득표율로 5개 의석을 차지하면서 플란더스지방 제1정당에 올랐고, 동시에 플란더스기독교민주당(CD&V)과 연합하여 연정에도 참여하였다. 이어서 2010년 총선에서 17.4% 득표율로 27의석을, 2014년 총선에서는 20.3%의 득표율로 33개 의석을 차지하면서 플란더스를 넘어 벨기에 연방의 제1정당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3〉은 오늘날 벨기에의 대표적인 플란더스 분리주의 정당인 VB과 N-VA가 창당 이후 최근까지 총선에서 거둔 득표율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3〉 벨기에 플란더스 분리주의 정당 득표율 변화(1978-2014)



출처: VB 홈페이지 www.vlaamsbelang.org; N-VA 홈페이지 www.n-va.be.

17) 플란더스블록당과 플란더스이익당의 공식명칭은 다르지만, 전자를 계승한 후자는 전자와 동일한 약칭 VB를 사용한다.

오늘날 벨기에 정치권에서 플란더스 분리주의 정당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은 가장 최근 치러진 벨기에 총선이었던 2014년 5월 총선에서 정당별로 차지한 연방의회 하원 의석수를 보여준다. 벨기에연방 하원의석의 약 1/4을 지역정당인 플란더스 분리주의 정당이 차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2014년 총선 결과 벨기에연방 하원의원 정당별 의석수

정당	의석	언어권	이념성향
신플란더스연맹(N-VA)	33	네덜란드어	자유-보수주의&플란더스 분리주의
사회당(PS)	23	프랑스어	사회민주주의
개혁운동당(MR)	20	프랑스어	자유주의
기독교민주플란더스당(CD&V)	18	네덜란드어	기독교민주주의
열린자유민주당(Open VLD)	14	네덜란드어	자유주의&사회적 자유주의
색다른사회당(SP.A)	13	네덜란드어	사회민주주의
인본주의민주당(CDH)	9	프랑스어	기독교민주주의
녹색당(Groen)	6	네덜란드어	생태주의
환경당(Ecolo)	6	프랑스어	생태주의
플란더스이익당(VB)	3	네덜란드어	극우주의&플란더스 분리주의
노동자당 (PTB-GOI/PVDA+)	2	연합	맑스-레닌주의&노동조합주의
프랑스어권민주연방당(FDF)	2	프랑스어	지역주의&자유주의
인민당(PP)	1	프랑스어	보수-자유주의&연합주의
전체	150		

출처: 벨기에 연방의회 홈페이지 www.fed-parl.be.

제1정당인 N-VA의 약진은 지방선거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2004년 지방선거에서 N-VA는 득표율 26.1%로 플란더스 의회 124개 의석 중 6개 의석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2009년 선거에서는 16개 의석, 2014년에는 43개 의석을 차지하였다. 가장 최근선거인 2014년 선거에서의 득표율은 31.9%에 이르러 플란더스지방 제1정당의 위상을 분명히 했다. <표 4>는 2014년 지방선거 정당별로 차지한 플란더스의회 의석수를 보여준다.

〈표 4〉 2014년 지방의회 결과 플란더스의의회 정당별 의석수

정당	의석	정당	의석
신플란더스연맹(N-VA)	46	녹색당(Groen)	10
기독교민주플란더스당(CD&V)	26	플란더스이익당(VB)	6
열린자유민주당(Open VLD)	19	프랑스어연합당(UF)1)	1
색다른사회당(SP.A)	18	전체	150

주: 1) 플란더스지방의 프랑스어화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

출처: 플란더스의의회 홈페이지 www.vlaamsparlement.be.

N-VA는 VB과 마찬가지로 플란더스지방의 분리독립을 지향하는 정당이다. 그러나 VB이 국민투표를 통한 즉각적인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N-VA는 연합(confederation) 단계를 거쳐 점진적인 분리독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분리주의 정당의 약진은 플란더스 자치운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제고하고, 플란더스 민족주의 세력을 다시금 결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분리주의 정당의 지지율 증가가 반드시 플란더스 자치운동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드 비셰(De Visscher, 2010)는 플란더스 분리주의 정당의 지지율이 크게 높아진 2010년 선거에서, 분리주의 정당의 득표율은 40%에 달했지만, 같은 시점 플란더스 주민의 분리독립 지지율은 약 15%에 불과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정당 지지율과 상관없이 분리독립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율은 낮은 수준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유권자가 선거기간에 특정 정당에 투표하는 행위가 주민들이 정당의 강령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참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분리주의 정당의 득표율 변화를 플란더스 자치운동 부침의 지표로 인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V. 플란더스 자치운동의 두 가지 노선

오늘날 플란더스 자치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플란더스가 벨기에 연방에서 탈퇴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한 분리독립 노선이고, 다른 하나는 벨기에 연방의 틀 안에서 지방의 권한 확대를 추구하는 자치권 확대 노선이다. 두 가지 노선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분리독립 노선

플란더스지방 정당인 VB와 N-VA가 주장하는 노선이다. 플란더스지방과 왈롱지방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두 지방 사이의 갈등 해결은 벨기에 연방을 해체하고 플란더스가 독립국가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플란더스 분리독립을 추구한다. 그런데, 분리독립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두 정당의 입장이 다르다. VB는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한다면, N-VA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변화를 지향한다.

VB이 주장하는 급진적 변혁은 플란더스가 독자적으로 문화를 보호할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플란더스 구성원은 동질 민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오창룡 2017). 그래서 이민자 수용에 반대한다. 이민자 유입은 인종과 문화를 혼합하기 때문이다. ‘플란더스 민족 먼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극우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VB는 플란더스가 왈롱지방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연방이 왈롱 중심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플란더스가 사회·경제적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 할 때에는 왈롱이 반대하여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고 주장하면서, 플란더스의 독립적인 주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플란더스 독립 방식과 관련하여, 우선 플란더스 의회에서 독립을 결정하고, 이후 왈롱과 협상하면서 단기간에 국가분리를 마무리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1993년에 있었던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분리와 2006년 있었던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분리는 벨기에가 참고해야 할 국가분리의 모범사례로 내세운다(오창룡 2017). 그리고 VB는 플란더스가 분리독립 되었을 때, 플란더스로 둘러싸인 브뤼셀은 플란더스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고, 브뤼셀이 독립국가 플란더스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N-VA는 플란더스의 분리독립을 지향하는 것은 VB와 공통적이지만, 분리독립의 필요성과 분리독립 방식에서 VB와 차이를 드러낸다. N-VA는 벨기에에서 네덜란드어권과 프랑스어권이 각자의 언어, 미디어, 문화를 통해 서로 별개의 여론을 형성하고, 정당들도 언어권에 따라 분리되어 있는데, 분리된 지방을 하나의 국가로 묶어두어서 정치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오창룡 2017). 결과적으로 공공지출 비용이 높아지고, 국민들은 누릴 수 있는 복지에 비해 높은 세금을 지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제도를 운영한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플란더스 분리독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N-VA는 벨기에에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가 운영되려면 분리독립이 불가피하지만, 궁극적으로 각 지방을 분리독립시키기에 앞서, 우선 현재의 연방주의 체제보다 지방정부

가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연합국가(confederal state)로의 이행을 제안한다(오창룡 2017). 연합국가에서는 중앙정부가 경제와 외교분야 등에서 제한적인 역할만 하고 대부분의 주요 정책 결정이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진다. 일례로, 현행 연방국가 체제에서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책정하고 분배하지만, 연합국가에서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N-VA도 브뤼셀 문제에 대해서는 플란더스 편입을 주장한다. 브뤼셀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원래 플란더스지방의 도시였기 때문에 플란더스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오창룡 2017). 그러나 브뤼셀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집단들에게 플란더스지방의 언어인 네덜란드어를 강요하지 않고 언어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N-VA는 민족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이민자 수용에 긍정적이다. 또한 VB가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동성애, 입양 등도 수용한다. 나아가 유럽연합의 정책에 동참해야 하고, 유럽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에서도 VB와 차이가 있다.

2. 자치권 확대 노선

CD&V와 VLD를 비롯한 주요 플란더스지방 정당들이 주장하는 노선이다. 플란더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가 확대되어야 하지만, 벨기에 연방의 해체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플란더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연방제보다는 국가연합(confederation) 상태의 국가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국가연합 상태는 플란더스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N-VA가 과도기적 단계로 제시한 상태에 해당한다. 그러나 N-VA는 연합국가를 거쳐 궁극적으로 분리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CD&V와 VLD 등은 벨기에라는 단일국가 틀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벨기에 단일국가 국가체계의 틀을 깨고 새로운 국가를 출현시키고자 할 경우,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합의에 도달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새로운 국가를 성립하는 과정에 많은 비용을 치려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다.¹⁸⁾

현재 플란더스지방의 자치운동은 주류는 자치권 확대 노선이다. 분리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층이 확대되고 있지만, 플란더스 주민의 대다수는 벨기에의 분열이라는 큰 변화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8) 출처 <https://goo.gl/GCREJL> (검색일 2017. 12. 20.).

Ⅵ. 결론: 플란더스 자치운동 전망

스페인 카탈로니아에 분리독립 투표가 강행된 사건을 계기로, 유럽 각지의 분리주의 운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다음 차례로 벨기에 플란더스가 독립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견이 나오고 있다. 플란더스에서 분리주의 독립을 주장하는 N-VA가 굳건하게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플란더스의 분리독립을 예견하는 주요 근거로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하였듯, 분리주의 정당 지지율이 곧 플란더스 분리독립 가능성 증가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플란더스와 왈롱 지역의 경제·사회적 격차가 지속되면서, 플란더스 주민 사이에 플란더스를 왈롱과 구분하려는 심리가 작용하지만, 실제로 플란더스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분리독립 달성을 어렵게 하는 난관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분리독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De Visscher 2014).

첫째, 벨기에 연방정부의 부채가 많다. 재정적자가 심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둘째, 분리독립시 브뤼셀 위상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 브뤼셀은 지리상으로 플란더스지방에 위치하지만, 벨기에 독립당시부터 수도의 역할을 하였고, 현재는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가 위치한 EU의 수도 기능을 하면서 연방국가 벨기에 내에서 플란더스지방과 별개의 지방으로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플란더스가 벨기에 연방으로부터 독립할 경우, 브뤼셀은 계속해서 벨기에 연방의 영역으로 남을 것인지, 독립된 도시국가의 형태를 취할 것인지, 혹은 플란더스 안의 섬이 된다는 우려에서 플란더스의 한 부분으로 편입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 브뤼셀 문제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 플란더스 독립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셋째, 분리독립에 대해 유럽연합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중·동부 유럽의 체제변환이 시작된 이래 유럽에서는 다수의 국가에서 분리독립 운동이 벌어졌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신생독립국이 되었다.

2000년대에도, 세르비아의 몬테네그로의 예와 같이, 분리독립 운동이 있었다. 그런데, 유럽이 체제변환기를 지나 안정화단계 접어들면서 분리독립에 대한 유럽연합은 입장은 대체로 신중하다. 최근의 카탈루냐 독립 시도에 대해서도 유럽연합은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벨기에는 유럽연합의 정책에 긴밀하게 협조하는 대표적인 친유럽 국가로서, 국내 정책이 유럽 차원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분리독립에 대해 유럽연합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상황은 벨기에 국민들이 분리독립 운동에 대해 거리를 두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상의 상황을 고려하건대, 최근의 플란더스 분리주의 정당에 부상한 플란더스 주민의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주민의 지지를 근거로 플란더스지방이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가까운 미래에 플란더스지방의 분리독립 지지층을 크게 확대하거나 분리독립을 성사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 안영진 · 조영국. 2008. 벨기에의 지역주의: 역사 · 문화적 배경과 정치 · 경제적 현실. *지리학연구* 42(3), 391-404.
- 오정은. 2009. 벨기에의 외국인 참정권에 관한 연구. *유럽연구* 27(3), 123-144.
- 오정은. 2015. 가톨릭루뱅대학: 분열과 통합의 상징. *통합유럽연구회*. 유럽을 만든 대학들, 책과함께. 357-374.
- 오창룡. 2017. 벨기에 분리주의 정당의 부상과 국가통합 플랑드르이익당(VB) 및 신플랑드르연대(N-VA)를 중심으로. 출처: www.jpi.or.kr/skyboard/download.sky?fid=4837&gid=5463&code=jpiscience (검색일: 2018.01.06.).
- 홍기준. 2006. 벨기에의 정치통합: 협의적 연방주의 사례 연구. *유럽연구* 23, 115-138.
- Avery, Graham. 2014. Independentism and the European Union. Policy Brief. European Policy Centre, May 7.
- Beyens, Stefanie, K. Deschouwer, E. Van Houten, T. Verthé. 2015. Born again, or born anew: Assessing the newness of the Belgian political party New-Flemish Alliance (N-VA). *Party Politics* 23(4), 389-399.
- Buyest Erik, G. Jennes,, J. Reynaerts, 2010. Update van de berekening van de stromen van overheidsmiddelen tussen de gewesten voor het jaar 2007. Vives K.U.Leuven, Beleidspaper 13. 출처: <https://goo.gl/yvbwGB> (검색일: 2018.12.20.).
- Deschouwer, Kris. 2012. The Politics of Belgium: Governing a Divided Society, Palgrave Macmillan, 2012.
- De Vissher, Christian, V. Laborderie. 2014. Belgique: stop ou encore? entre fédéralisme, confédéralisme et séparatisme. *Politique étrangère* 2013/2014 Hiver, 23-35.
- Leclerc, Jacques. 2008. Histoire de la Belgique et ses conséquences linguistiques. 출처: <https://goo.gl/HZLiHr> (검색일: 2018.01.05.).
- Mignolet, Michel, M-E. Mulquin. 2005. PIB et PRB de la Wallonie: des diagnostics contrastés. *Regards économique* 31, 9-14.
- Reuchamps, Min. 2013. The Future of Belgian Federalism Through the Eyes of the Citizens. *Regional and Federal Studies* 23(3), 353-368.

- Swenden, Wilfried. 2013. The Future of Belgian Federalism: between Reform and Swansong? *Regional and Federal Studies* 23(3), 369-382.
출처: <https://goo.gl/5xj3zn> (검색일: 2018.12.20.)
- Louvigny, Adeline, C. Ventura. 2018. Les chiffres-clés de l'économie wallonne. RTBF Info. 출처: <https://goo.gl/YEK9tN> (검색일: 2018. 1. 12.).
- “Prix de l'indépendance de la Flandre: 237 milliards d'€” *La Libre*. March 17, 2014. 출처 <https://goo.gl/jQENom> (검색일 2017. 12. 20.).
- “Que se passerait-il si la Belgique se désagrégeait?” *Le VIF*. February 8, 2016. 출처: <https://goo.gl/LhygZD> (검색일: 2017.12.20.).

홈페이지

- 벨기에 연방의회 www.fed-parl.be.
- 신폴란더스연맹 www.n-va.be.
- 플란더스이익당 www.vlaamsbelang.org.
- 플란더스의회 www.vlaamsparlement.be.
- 벨기에 통계청 <http://statbel.fgov.be>.

● 투고일: 2018.02.14. ● 심사일: 2018.02.14. ● 게재확정일: 2018.02.19.

A Study on the Flemish Movement toward Greater Autonomy

Oh Jungeun (Hansung University)

When Belgium became an independent country from the Netherlands in 1830, Flanders and Wallonia, two very different regions in their culture as well as their languages, were included in the Belgian territory. Flanders located in the North was a Dutch-speaking area, while Wallonia in the South was a French-speaking area. At the beginning of the new country, however, Belgian co-founders adopted French as the only Belgian administrative language with very little respect for the Dutch-speaking population, which helped ignite the Flemish movement for greater autonomy of Flanders, for protection of the Dutch language and for the overall protection of Flemish culture.

Today, Flanders is not a region institutionally discriminated against any more : the 1898 Equality law made Dutch an official language of Belgium and the revise of constitution in 1993 which transformed unitary Belgium into a federal state offered to Flanders equal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utonomy with Wallonia. But economic inequality between regions in recent years stimulate Flemish movement. In Flanders which is significantly richer than Wallonia, Flemish people complain that the federal government transfers their tax to Wallonia for Wallon jobless people, and many of them vote for Flemish separatist parties. Nevertheless, it seems not to happen that Flanders independents from Belgium in near future because of knotty problems coming from complicated interests.

〈Key words〉 Flanders, Wallonia, Autonomy movement, separatism, secession